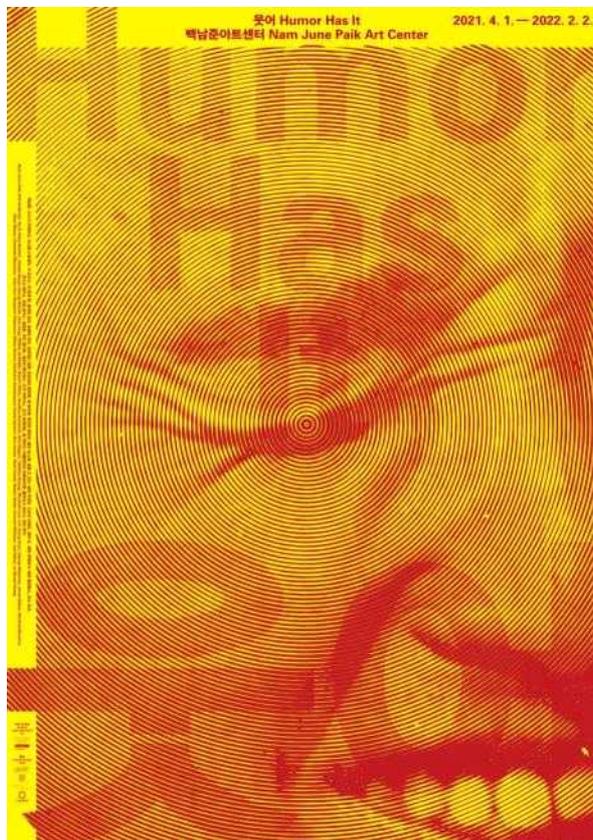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전 《웃어》 Nam June Paik Art Center <i>Humor Has It</i>		
문의	전시: 박상애 학예운영실장 t.031-201-8557 m.010-2704-4540 취재: 장효진 학예연구사 t.031-201-8545 m.010-2758-7451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1. 4. 1.	쪽수	총 19매

백남준아트센터 2021 백남준전 《웃어》 *Humor Has It*



- ▶ ‘백남준’과 전위예술 네트워크 ‘플럭서스’를 ‘유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시 《웃어》 개최
- ▶ 《웃어》는 사회의 통념과 제도의 예술을 재치 있게 받아친 백남준식 웃음의 반격을 우리의 일상에 비추어 보는 전시
- ▶ ‘플럭서스’가 세상에 나온 지 60년이자 리투아니아 출신 플럭서스 작가 조지 머추너스 탄생 90주년인 해를 기념하여 리투아니아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아트센터, 리투아니아 문화원 및 대사관과 협력하여 백남준과 플럭서스 작가들의 작품 및 아카이브 200여 점 전시

■ 전시개요

- 전 시 명 : 《웃어》 *Humor Has It*
- 전시기간 : 2021. 4. 1. ~ 2022. 2. 2.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제1전시실
- 기 획 : 박상애(백남준아트센터 학예운영실장)
- 공동기획 : 박혜진(독립 큐레이터)
- 참여작가 : 백남준, 고스기 다케히사, 다니엘 스포에리, 딕 히긴스, 라 몬테 영, 로버트 와츠, 로베르 피유, 만프레드 레베, 만프레드 몬트베, 벤 보티에, 벤저민 패터슨, 볼프 포스텔, 빌럼 드 리더, 살럿 무어먼, 시오미 미에코, 에이-오, 에릭 안데르시, 에밋 윌리엄스, 오노 요코, 요나스 메카스, 요셉 보이스, 저드 알커트, 제프리 헨드릭스, 조지 머추너스, 조지 브레히트, 존 케이지,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 클라우스 바리시, 피터 무어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협력 : 리투아니아 문화원, 리투아니아 대사관,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아트센터, 빌뉴스 시
- 협 찬 : 산돌구름

■ 전시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김성은)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백남준 전 《웃어》를 개최한다. 백남준과 플럭서스를 유머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번 전시는 리투아니아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아트센터, 빌뉴스 시, 리투아니아 문화원, 리투아니아 대사관과 협력하여 대규모 플럭서스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리투아니아는 플럭서스의 주창자인 조지 머추너스가 난 곳이다. 이번 전시는 30여 명의 국내외 작가들의 플럭서스 작품과 아카이브 200여 점이 출품되며 9월 중 일부를 교체하여 더 많은 플럭서스 작품과 아카이브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머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있어 유용한 전략이다. 우리는 웃음으로 구현되는 농담을 통해 전복적 움직임을 은유적으로 표명할 수 있다. 또한 유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통념이 정해 놓은 것들을 자유롭게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의, 조롱, 모순, 해방, 파괴 등의 제스처를 담은 우스갯짓은 사회의 현상과 전통적 가치에 대해 균열을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웃어》 전시는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예술 제도에 도전한 플럭서스와 백남준을 유머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플럭서스는 유럽과 미국에서 1950년대 후반에 태동한 파격적 예술 네트워크이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유로운 연합과 해체를 거듭하며, 전통적인 고급예술의 경계에 도전했고, 대중이 함께 향

유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선보였다. 1960년대 격변하는 사회에서 플럭서스는 혁명적인 예술 흐름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지속했다. **예술과 사회의 문제들을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다룬 플럭서스의 중심에 백남준이 있었다.** 비디오 아트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그가 선보였던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퍼포먼스는 플럭서스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백남준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신체를 매체로 활용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조합하고,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신문답과도 같은 지시문들로 질문을 던졌다.

《웃어》 전시에서는 기록 사진과 영상을 통해 플럭서스의 당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장피에르 빌헬름에 대한 경의>(1978),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테이프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1958-1962), <사우스 2번(백남준에게)>(1964) 등의 오마주 작품들을 포함하여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1962), 《페스텀 플럭소럼 플럭서스》(1963), 《오리기날레》(1961), 《플럭스소나타》(1975),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1963-1980) 등의 아카이브가 출품될 예정이다. 그리고 조지 머추너스가 중심이 되어 제작한 플럭스키트들과 이벤트 스코어들이 전시되며, 전시장에서 관객들은 이를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다. 또한 신문, 출판물, 상점의 상품 등의 형식으로 된 전시작을 통해 플럭서스가 제안했던 새로운 예술 유통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휴대용 TV>(1975), <냄비(한국 조리법)>(1985), <컬러의자, 흑백의자>(1984), <귀거래>(1992) 등 일상성을 구현한 백남준의 작품들도 전시 예정이다.

이 전시는 플럭서스를 통해 백남준을 바라본다. 플럭서스가 보여주었던 경계의 해체, 자유로운 연대, 사회적 금기에의 도전, 사회정치적 개입, 고급예술에 대한 반격 등은 백남준의 예술을 관통하는 특징이다. 백남준은 짜인 틀이나 규칙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실험을 지속하고, **진지하고 혁명적인 사유를 유쾌하게 제안했다.** **이렇듯 제도, 규범, 통념을 받아치는 백남준식 웃음의 반격을,**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접하는 태도로 한 번쯤은 차용해 봄 직하지 않을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유머는, 웃음은 적어도 숨통을 틔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될 터이니 말이다.

■ 전시 구성

전시는 1차 (2021.4.1. - 8.29.)와 2차(2021.9.4. - 2022.2.2.)로 나뉘어 진행되며, 9개의 이야기와 극장, 상점으로 구성된다.

1. 장피에르에게

“걷는다, 뛰다, 행인들을 바라본다, 생각에 잠긴다, 웃는다.”

갤러리 22를 설립하고 플럭서스를 적극 후원했던 장피에르 빌헬름이 세상을 떠난 후 백남준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행동을 통해 장피에르를 추모하였다. 백남준은 장피에르 없이 플럭서스는 존재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생애에 세 번이나 전환점을 만들어준 인물이라며 고마워했다. 예술과 삶의 경계를 흐리고, 예술적 매체에 질문을 던진 플럭서스의 은인 장피에르에게 백남준은 플럭서스의 발상으로 이러한 동작을 통해 추모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2. 반격의 연주

플럭서스 작가들은 하얀 벽의 갤러리나 미술관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술적 시도를 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소리를 만들어 냄으로써 음악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이 많았다. 악보를 작성하고 이를 다양하게 해석하여 연주하는 음악적 수행을 미술과 결합한 것이다. 악기와 신체를 사용하도록 하는 스코어를 쓰고, 다양한 작가들이 여기에 해석을 더해 실연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전통적인 악기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주하고, 일상의 사물과 소리로 음악을 작곡했다. 백남준 역시 다른 플럭서스 작가들처럼 음악과 미술, 예술과 일상의 경계에 반격을 가하는 작곡과 연주를 과감하고도 유머러스하게 실행하였다.

3. 플럭서스 전설들: 존 케이지

존 케이지는 플럭서스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공동의 스승 같은 존재였다. 케이지가 실험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주창하였던 불확정성, 즉흥성, 우연과 일상의 반영 등 전통 클래식 음악에서 벗어났던 작곡 방식은 기존의 예술 질서에 도전하는 플럭서스의 기조와 맞닿아 있었다. 1950년대 후반 뉴욕 뉴스쿨에서 가르치던 당시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훗날 플럭서스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조지 브레히트, 라 몬테 영, 딕 히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백남준 또한 본인의 인생이 케이지 만남 이전과 이후(B.C./A.D)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케이지의 음악에 큰 영향을 받았다.

4-1. 플럭서스 전설들: 조지 머추너스

조지 머추너스는 플럭서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존 케이지를 중심으로 펼쳐진 뉴욕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실험적 움직임에 처음으로 “플럭서스”라는 명칭을 붙였고, 1962년 독일 비스바덴 미술관에서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1963년에는 〈플럭서스 선언문〉을 작성하며 이들의 실험을 플럭서스 활동으로서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플럭서스의 활동에는 정해

진 예술 장르나 재료 등 제약이 없었다. 많은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풀어내는 작업들은 그만큼 각양각색인데다 연결점도 느슨했지만, 머추너스는 그 가운데서 여러 페스티벌 기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들을 플럭서스라는 이름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다.

※ 전시 기간: 2021. 4. 1. - 8. 29.

4-2. 플럭서스 전설들: 요셉 보이스

요셉 보이스는 백남준, 조지 머추너스와 함께 1960년대 초 독일의 플럭서스 활동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로, 플럭서스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던 《페스티벌 플럭소럼 플럭서스》 개최를 주도하며 플럭서스의 전위적인 예술 활동에 앞장섰다. 백남준과 보이스는 1961년 뒤셀도르프의 전시에서 처음 만나 1986년 보이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술적 동료로 서로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는데, 백남준의 첫 개인전에 보이스가 갑작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이거나 함께 듀엣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활발히 교류했다. 1986년 보이스 타계 후 백남준은 그를 기리는 의미로 둘의 깊은 관계를 짐작케 하는 추모 작품 〈보이스 박스〉(1988)를 제작하였다.

※ 전시 기간: 2021. 9. 4. - 2022. 2. 2.

5. 도발하는 연대들

플럭서스는 국가의 차이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고 인류의 공통된 관심사에 주목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인 작가들의 연대였다. 플럭서스를 통해 동서양의 작가들이 자유롭게 협업했고, 백남준 역시 대표적인 플럭서스 작가로 1970년대 말까지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플럭서스는 결과적 오브제로의 작품보다 과정과 참여자의 기여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적 공연의 형식이 중심이 되었다. 플럭서스 퍼포먼스에서 관객과 퍼포머의 공간적 경계는 무너졌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치적 제도, 예술과 일상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이 구현되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한 작품을 공연하는 작가들과 함께한 관객들은 감각적인 표현이나 통념을 벗어나는 표현이 유발하는 웃음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6. 어쩌다 예술

플럭서스 작품들은 게임, 지시문, 키트, 우편, 신문, 책,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많이 만날 수 있는 유형은 지시문, 즉 스코어이다. 뜻 모를 이야기이기도 하고, 단순히 몸을 움직여 따라 할 수도 있고, 게임의 규칙일 수도 있고, 일종의 논리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작은 카드에 적힌 문구들은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다. '플럭스키트'라고 부르는 상자의 형식도 있다. 작은 사물들부터 함축적인 글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감각적 자극으로 구성되는 플럭스키트는 '작은 플럭서스 미술관'이라 할 수 있다. 스코어와 플럭스키트는 유일하고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다양한 개입과 해석으로 매번 다르게 흘러가는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작가의 진본성과 작품의 원본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7. 일상의 파격

특정 계층이 향유하는 고급 예술의 개념에 도전한 플럭서스는 일상과 예술을 하나로 인식하고, 삶과 통합된 예술을 지향했다. 또한 결과물로서의 작품보다는 참여자들과의 작업 과정을 중요하게 보았던 플럭서스는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예술에 반기를 들었다. 거리 퍼포먼스나 요리 퍼포먼스를 관객들과 함께 했고, 신문과 잡지, 책이나 우편도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플럭서스 작가들은 도발적인 메시지를 담은 글귀들에 미적 디자인을 입혀 내용과 형식의 간극을 발생시켰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나 가족 이야기를 작업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모두 예술이 가지는 배타성에 질문을 던지는 플럭서스의 방식이다.

8. 플럭서스 전설들: 샬럿 무어먼

백남준의 예술적 동반자였던 샬럿 무어먼은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당대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뉴 뮤직의 잔 다르크'로 불렸다. 클래식 첼리스트의 길보다 1960년대 실험음악에 더 끌렸던 무어먼은 백남준은 물론 오노 요코, 요셉 보이스 등 여러 플럭서스 작가들과 교류하며 클래식 음악의 정형화된 틀을 깨는 공연들로 이름을 남겼다. 1963년부터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을 기획하여 실험음악, 해프닝 등을 선보였는데, 이때 플럭서스의 실험적 퍼포먼스들도 다수 공연되었다. 특히 무어먼은 1964년 《제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이 기획한 공연 《오리기날레》의 재연을 준비하던 중 슈톡하우젠의 협업자였던 백남준과 처음 만나게 되며, 이후 두 예술가는 조각, 음악, 퍼포먼스, 기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실험으로 예술계를 뒤흔들었다.

9. 남준에게

9-1. 고스기 다케히사

고스기 다케히사의 〈사우스 2번 (백남준에게)〉(1964)는 백남준의 이름자 중 하나인 '남(南)'과 영어단어를 교차하여 만든 헌정곡이다. 15분동안 '사우스'라는 발음을 최대한 늘려 한번에 발음하는 퍼포먼스이다.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늘려 함으로써 일상적 행위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고스기 퍼포먼스의 특징이다. 고스기는 2013년 에든버러국제페스티벌 초청으로 백남준아트센터와 에든버러대학교 텔봇라이스갤러리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의 개막 공연으로 이 작품을 실연하였다.

※ 전시 기간: 2021. 4. 1. - 8. 29.

9-2. 벤저민 패터슨, 조지 머추너스

벤저민 패터슨은 2010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조지 머추너스가 백남준에게 헌정한 〈백남준을 위한 12개의 피아노곡〉(1962)을 공연하였다. 음악을 공부했고 피아노를 자주 다뤘던 백남준의 플럭서스적 면모에 대한 머추너스의 스코어는 무대 위에서 피아노를 조율하고, 현을 당기고, 피아노 내부에 장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피아노를 닦고 치우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한다. 패터슨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코어를 재해석하여 한복을 입은 아동들과 함께 피아노의 이동과 조율, 연주와

장치, 그림 그리기 등을 함께 하였다.

※ 전시 기간: 2021. 9. 4. - 2022. 2. 2.

10. 플렉서스 극장

10-1. 필름을 위한 선

필름 프로젝터의 소리와 함께 빈 화면에 빛과 먼지, 스크래치 흔적이 투영된다. 백남준의 〈필름을 위한 선〉(1965)은 필름의 물성을 시각화하며 청각적인 백색소음과 함께 비어 있는 화면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백남준은 이 설치작품과 관련하여 필름 한 조각과 못을 넣은 플렉스키트를 제작하여 플렉서스 멀티플로 남겼다.

※ 전시 기간: 2021. 4. 1. - 8. 29.

10-2. 플렉서스 필름

플렉서스 작가들은 필름 자체의 물성을 탐구하고 실험하거나, 퍼포먼스의 기록 매체로 활용하거나, 사운드와 함께 실험영화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조지 머추너스는 동료 작가들의 필름 작업들을 모아 플렉서스 필름 시리즈를 구성했다. 시오미 미에코, 조지 브레히트, 벤 보티에, 오노 요코, 볼프 포스텔 등의 흑백 필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전시 기간: 2021. 9. 4. - 2022. 2. 2.

11. 플렉서스 상점

백남준은 1960년대와 70년대 예술계의 문제점으로 작가들이 중앙집권적 미술 배급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지 머추너스가 바로 예술 배급망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점에서 영리한 작가라고 말하였다. 플렉스키트와 스코어, 신문을 비롯한 복본 작품, 즉 '멀티플'의 판매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플렉서스 예술 배급망 구축 노력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배타적인 상업 미술시장을 비판하고 새로운 예술 배급에 도전했던 플렉서스의 시도는 멀티플이라는 유형으로 작품을 거래하는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주요 작품 소개

1) 만프레드 레베 <장피에르 빌헬름에 대한 경의>, 뒤셀도르프 (1978)



만프레드 레베 <장피에르 빌헬름에 대한 경의>, 뒤셀도르프 (1978)
백남준(작가 및 공연자)
흑백 사진, 20.3×25.4cm
© Manfred Leve

“걷는다, 뛰다, 행인들을 바라본다, 생각에 잠긴다, 웃는다.” 백남준은 만프레드 레베에게 이런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을 찍어 달라고 청했다. 장소는 갤러리 22가 위치했던 곳으로, 백남준이 <존 케이지에 대한 경의: 테이프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1959)을 처음 발표할 수 있었던 곳이다. 당시 25살 이었던 백남준은 다름슈타트 국제 현대음악 하기강좌에서 자신의 첫 곡을 발표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잘 성사되지 않았고 낙심한 백남준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갤러리 22를 운영하던 장피에르 빌헬름이었다. 이후 빌헬름은 백남준을 비롯한 플럭서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빌헬름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백남준은 가장 평범한 일상의 행동을 통해 빌헬름을 추모했다.

2) 피터 무어 <플럭서스 소나타 4번>,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뉴욕 (1975)



피터 무어 <플럭서스 소나타 4번>,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뉴욕 (1975)

백남준(작가 및 공연자)

바리타지에 흑백 사진, 40×59.5cm

© Estate of Peter Moore / VAGA, New York

1973년 뉴욕 우스터가 80번지에 건축 중이던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공연한 <플럭서스 소나타 1번>을 시작으로 백남준은 이 소나타 시리즈를 같은 장소에서 몇 차례 수행하였다. 사진은 1975년 <플럭서스 소나타 4번> 퍼포먼스이다. 여러 대의 턴테이블을 앞에 두고 백남준이 LP 음반 하나를 재생한 후 팔짱을 끼고 앉아 유심히 듣다가 다른 턴테이블로 가서는 또 다른 음반을 올려 놓고 레버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재생되고 있는 두 판 사이를 오가며 손으로 판의 회전을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행동을 반복한다. 음반의 재생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퍼포먼스로서 오늘날 디제잉을 연상케 하는 액션이다.

3) 클라우스 바리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아틀리에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쾰른 (1960)



클라우스 바리시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아틀리에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쾰른 (1960)
백남준, 존 케이지, 데이비드 튜더
흑백 사진, 28.3×29cm

백남준은 본인의 인생이 케이지 만남 이전과 이후(B.C./A.D)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케이지의 음악에 큰 영향을 받았다. 1959년 독일 다름슈타트에서 케이지를 처음 만났던 백남준은 마리 바우어마이스터의 쾰른 스튜디오에서 케이지와 함께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을 공연한다. 백남준은 쇼팽의 음악을 연주하며 시작하지만, 이내 연주를 멈추고 케이지의 넥타이를 가위로 잘라버린 후 그와 데이비드 튜더의 머리 위로 샴푸를 뿌리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이어간다.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은 케이지의 음악적 관점에 백남준 식의 유머가 더해진 작품이었다.

4) 백남준, 요셉 보이스 〈조지 머추너스를 추모하며〉 (1982)



백남준, 요셉 보이스 〈조지 머추너스를 추모하며〉(1982)
나무상자 1개, 〈원초 건반〉, 펠트 뺨기, LP 2장, 41×62×13.6cm

플럭서스의 대표작가인 조지 머추너스가 작곡했을 때 요셉 보이스와 백남준은 뒤셀도르프에서 함께 추모 공연을 하였다. 이 공연을 회고하여 제작한 〈조지 머추너스를 추모하며〉는 나뭇가지들로 만든 작은 피아노 모양인 백남준의 〈원초 건반〉, 보이스가 많은 퍼포먼스에서 사용했던 펠트 뺨기, 보이스와 백남준의 듀엣 공연 L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P의 표지는 머추너스가 고릴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이며, 〈원초 건반〉은 백남준이 1961년 나무 상자에 각종 줄을 매달고 강통을 돌려 소리를 내게 한 플럭서스 오브제 〈원초 음악〉의 연장선이다. 〈조지 머추너스를 추모하며〉는 백남준, 요셉 보이스, 조지 머추너스, 플럭서스의 연합체와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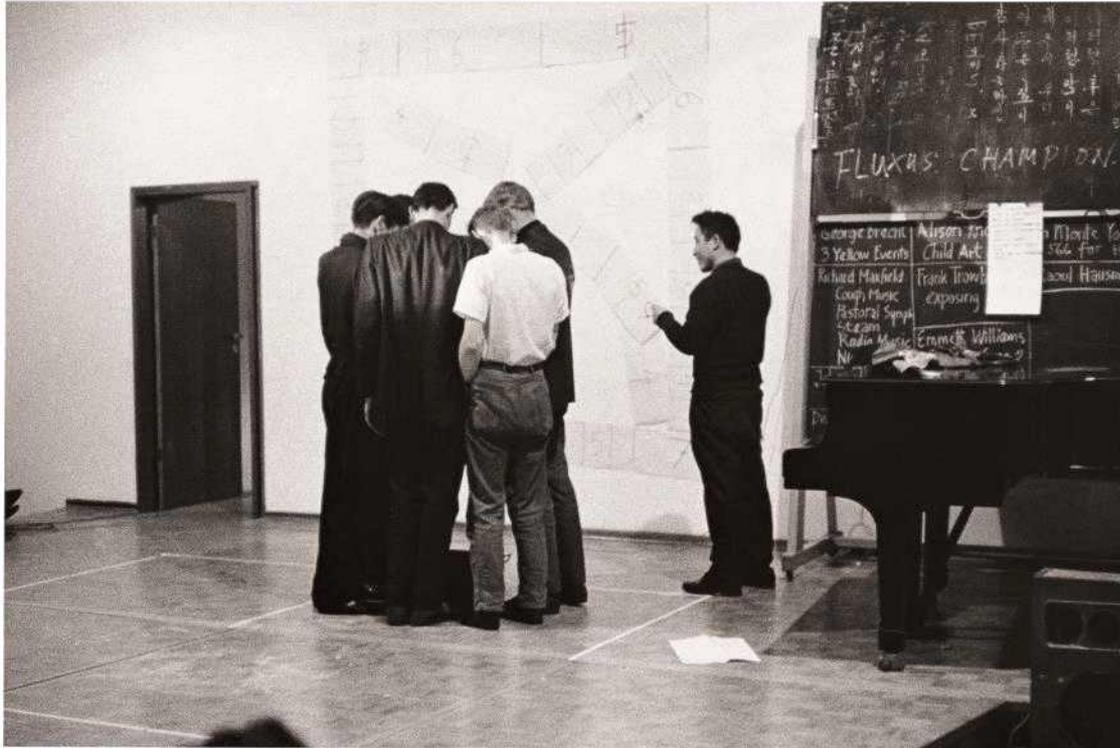
5) 백남준 〈보이스 박스〉 (1988)



백남준 〈보이스 박스〉 (1988)
혼합재료, 가변크기

백남준과 요셉 보이스의 깊은 관계를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 작품은 보이스가 세상을 떠난 후 백남준이 추모의 뜻을 담아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보이스의 목소리'라는 작품의 제목이 의미하듯이 다양한 보이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961년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때에 제로 그룹 전시에서 우연히 같이 찍힌 사진, 1962년 백남준의 책에서 발견된 "Josef"라고 서명된 메모, 1965년 두 작가가 같이 참여했던 퍼포먼스 《24시간》의 사진을 비롯하여 백남준과 보이스가 함께 공연한 〈조지 머추너스를 추모하며〉(1978)의 사진과 LP 레코드 판 등이 포함되어 있다.

6) 만프레드 레베 <플럭서스 챔피언 콘테스트>, 《페스텀 플럭소럼 플럭서스: 음악과 반음악, 기악 극장》, 예술아카데미, 뒤셀도르프 (1963)



만프레드 레베 <플럭서스 챔피언 콘테스트>, 《페스텀 플럭소럼 플럭서스: 음악과 반음악, 기악 극장》,
예술아카데미, 뒤셀도르프 (1963)
백남준(작가 및 공연자), 프랭크 트로브리지(공연자)
흑백 사진, 20.3×25.4cm
© Manfred Leve

다양한 국적의 남성 작가들이 양동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고, 백남준은 옆에서 스톱워치를 들고 시간을 재고 있다. 오줌을 가장 오래 누는 기록을 달성한 사람이 승리하는 시합으로, 우승한 사람의 국가를 틀어주게 되어 있다. 사진 속의 공연에서는 미국의 프랭크 트로브리지가 59.7초로 우승을 해서, 백남준은 미국의 국가를 울려주었다. 생리혈로 여러 국기를 물들이라고 지시했던 <아름다운 여성 화가의 연대기>와 같이 언급되는 작품으로, 흔히 금기로 간주되는 체액의 이미지를 국가라는 권위에 연결시켜 그에 도전하는 작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백남준은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권위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물리적인 소리에 집중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TV를 설명할 때 이 작품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개성의 표현이 아니라 단지 물리적 음악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술이나 국가 같은 정형화된 권위에 도전하는 작품으로 읽히지만, 그의 다른 파격적인 작품과 마찬가지로 소리에도 주목할 수 있는 작품이다.

7) 조지 브레히트 <이름 키트> (1965)



조지 브레히트 <이름 키트> (1965)

플라스틱 박스 1개, 작은 주사위 5개, 고무 도장 2개, 지시문 카드, 9.3×12×2.6cm

조지 머추너스가 1964년 기획한 '플렉스키트' 개념에 따라 플렉서스 작가들은 작은 오브제나 인쇄물을 사용해 사용자가 게임처럼 실행해볼 수 있는 멀티플 에디션 키트를 제작하였다. 이 키트들은 소형 서류가방에 함께 담겨 판매되기도 했는데, 백남준의 「실험 TV 전시회의 후주곡」(1964)이 실렸던 플렉서스 신문 제3호 『FLuxus cc fiVe ThReE』에 광고가 게재되면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 플렉스키트는 조지 브레히트의 게임과 퍼즐 중 하나인 <이름 키트>로, “당신 이름의 철자를 쓰세요.”라는 지시문이 적힌 종이와 여러 가지 모양의 작은 주사위 5개, 그리고 고무도장 2개가 담겨 있다.

8) 백남준 <최초의 휴대용 TV> (1973)



백남준 <최초의 휴대용 TV> (1973)
나무 빗틀, 잉크, 7.5×32×2cm

백남준은 뒤셀도르프에서 교수로 있는 동안 뉴욕과 독일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했다. 플럭서스 컬렉터인 에릭 안데르시는 백남준이 독일에 머무르는 동안 가까이 지내며 그의 작업을 수집하고 기록했다. 이 작품은 백남준아트센터가 2009년 안데르시로부터 구입한 소장품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이다. <최초의 휴대용 TV>는 독일 가정에서 쓰던 빗틀의 금속 부분에 백남준이 모니터 모양을 남겨 두고 주변을 검은색으로 칠해 만든 작품이다. 세로 선이 촘촘한 쇠판이 마치 화면 주사선처럼 보이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빗틀을, 손쉽게 휴대해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미래의 텔레비전과 연결시킨 것이다. 일상의 물건에 자신의 미디어에 대한 비전을 담아 <최초의 휴대용 TV>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작품에는 백남준의 플럭서스적인 유머가 가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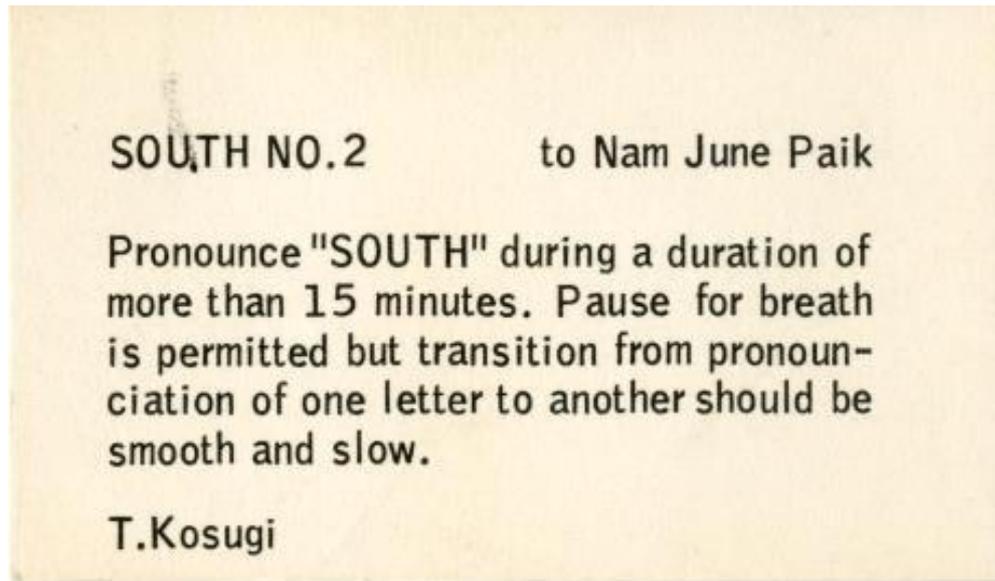
9) 클라우스 바리시 <현악 연주자를 위한 26분 1.1499초>, 《백-무어먼의 밤》, WDR 라디오 하우스, 쾰른 (1980)



클라우스 바리시 <현악 연주자를 위한 26분 1.1499초>, 《백-무어먼의 밤》, WDR 라디오 하우스, 쾰른 (1980)
존 케이지(작가), 백남준, 살럿 무어먼(공연자)
흑백사진, 21×29.7cm

클라우스 바리시는 백남준의 작품활동을 담은 여러 사진을 남겼다. 이 작품은 1980년 9월 쾰른의 WDR 라디오에서 백남준이 살럿 무어먼과 함께한 퍼포먼스 장면을 담았다. 사진 속에서 백남준과 무어먼은 존 케이지의 <현악 연주자를 위한 26분 1.1499초>(1953)를 공연하고 있다. 케이지의 스코어는 악기가 아닌 여러 가지 물건들과 함께 현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이다. 무어먼은 백남준의 몸을 첼로로 삼아 케이지의 곡을 연주하며, 권총, 포탄, 풍선, 버섯, 전화 등으로 소리를 만드는 공연을 하였다.

10) 고스기 다케히사 〈사우스 2번 (백남준에게)〉 (1964)



고스기 다케히사 〈사우스 2번 (백남준에게)〉 (1964)
종이에 인쇄, 4.8×7.9cm
요나스 메카스 비주얼아트센터

고스기 다케히사의 〈사우스 2번 (백남준에게)〉(1964)는 백남준의 이름자 중 하나인 ‘남(南)’과 영어단어를 교차하여 만든 헌정곡이다. 15분 동안 ‘사우스’라는 발음을 최대한 늘려 한 번에 발음하는 퍼포먼스이다.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지나치게 긴 시간 동안 늘려 함으로써 일상적 행위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새로운 예술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고스기 퍼포먼스의 특징이다. 고스기는 2013년 에든버러국제페스티벌 초청으로 백남준아트센터와 에든버러대학교 텔봇라이스갤러리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의 개막 공연으로 이 작품을 실연하였다.

11) 백남준 <필름을 위한 선> (1965)



백남준 <필름을 위한 선> (1965)
영사기, 빈 필름

필름 프로젝터의 소리와 함께 빈 화면에 빛과 먼지, 스크래치 흔적이 투영된다. 백남준의 <필름을 위한 선>(1965)은 필름의 물성을 시각화하며 청각적인 백색소음과 함께 비어 있는 화면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백남준의 <걸음을 위한 선>, <TV를 위한 선>, <머리를 위한 선>과 함께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1964년 조지 머추너스가 기획한 플럭서스 페스티벌, 1965년 요나스 메카스가 기획한 《뉴 시네마 페스티벌 I》에서는 백남준이 <필름을 위한 선> 영사기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하였다. 백남준은 이 설치작품과 관련하여 필름 한 조각과 못을 넣은 플럭스키트를 제작하여 플럭서스 멀티플로 남겼다.

■ 관람안내

- 관람요금: 무료
-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입장은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